

인쇄저널

Printing Journal 발행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주)해인기획 유명식 대표이사

이슈 공공 인쇄조달 계약제도 쇠신되어야

인터뷰 (주)해인기획 유명식 대표이사

09

2024 | Vol.442

Since 1965

지학사 교과서 풍년일세!



2022 개정 지학사 교과서, 풍년이구나!
기름진 땅에 씨앗을 심고, 땀과 노력으로 일군 지학사 교과서가 풍년을 맞았습니다.
새로워진 교과서와 수업지원플랫폼, AIDT까지 지학사의 결실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 강원도 영월군 삼돌이마을 | 교과서 사업본부_김재형 주임, 김윤아 사원



지학사 지학사 티솔루션

제15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15th SEOUL PRINT AWARDS & FESTIVAL

인쇄, 미래를 창조하다

PRINT THE FUTURE

2024. 10. 15 (화)
10:00-18:00
서울청계광장

SPAF 2024
Seoul Print Awards & Festival
인쇄는 서울특별시 특약품목입니다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서울인쇄센터



컬러 본능

살아있는 색을 구현하다



보유인쇄기종

- RYOB OFFSET 1020ST-5
- MITSUBISHI DAIMOND 3000Ls5color
- KOMORI LITHRONE LS426



일산 장항동 공장



일산 장항동 공장



충무로 공장

KYUNGSUNG 경성문화회사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11 여의도동 퍼스텍빌딩(B1F, 1F, 4F, 5F, 7F, 8F, 9F) T.02-786-2999
 충무로 공장 서울시 중구 퇴계로31길 18, 1층(충무로3가, 용봉빌딩) T.02-2274-5944
 일산 장항동 공장 고양시 일산동구 장대길 128-66 T.031-908-977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 세종(편집·디자인실) 세종 특별자치시 어진동 3-113



08



09



18

발행일	2024년 9월 10일
등록일	1990년 3월 23일
발행인	김윤중
편집인	김병수
홍보미디어 위원회	위원장 서동숙 부위원장 류윤현 위원 강혜성, 목영만, 채연화
기획 제작	사업홍보팀 ☎ 02-333-8631
발행처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www.spiic.or.kr
주소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40 (쌍림동 146-1)
디자인 제작	카오스넷근아 ☎ 02-2278-1577

Contents

2024 | Vol.442 **09**

06	기고	K-PRINT 2024 전시회: 대한민국 인쇄산업의 미래를 열다-김정조
08	리뷰	새로운 산업의 미래를 여는 통합 솔루션 선택
09	포커스	서울인쇄조합과 중국인쇄기자재협회, 협력 강화 논의
10	이슈	공공 인쇄조달 계약제도 해신 되어야 - 김법연
14	기자간담회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16	절세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17	알림	2025년도 조합원 수첩 대표자 컬러사진 접수
18	인터뷰	(주)해인기획 유영식 대표이사
22	PREVIEW	제15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기대된다
24	업계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인쇄조합, 제3회 정기이사회 개최 • 인쇄물 적정가격 제도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 2024년 서울인쇄조합 인쇄인력 해외연수 사전설명회 개최 • 투데이아트, 한국항공대학교 10억 기증 •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킷오프 회의 개최 • 조합원사 변동
30	건강	치매

K-PRINT 2024 전시회

대한민국 인쇄산업의 미래를 열다



김정조
(주)한국이앤엑스 대표이사

K-PRINT 2024

성공적인 K-PRINT 2024 전시회

2024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린 K-PRINT 2024 전시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300여 개의 인쇄 관련 기업이 참가하여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고, 약 5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대한민국 인쇄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K-PRINT 2024는 인쇄산업의 글로벌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인쇄업계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는 인쇄산업의 디지털화, 친환경화,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쇄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K-PRINT 2024 전시회의 의의와 대한민국 인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K-PRINT 2024 전시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인쇄업계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디지털 인쇄기술의 발전은 인쇄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소량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요구에 더욱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고해상도 디지털 인쇄기, 특수 프린팅 기술, 그리고 AI 기반의 인쇄 관리 시스템이 대거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인쇄산업이 단순한 생산을 넘어 데이터와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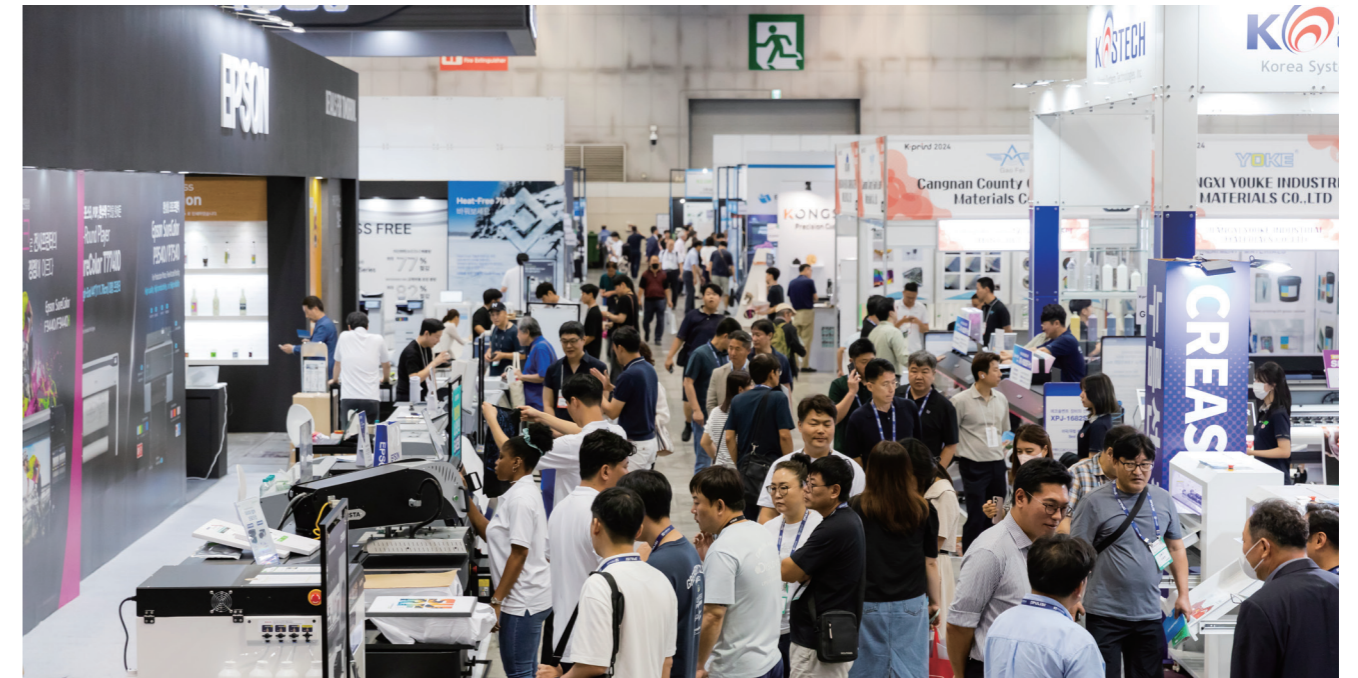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한민국 인쇄산업은 디지털 인쇄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인쇄 솔루션, 자동화된 생산 공정, 그리고 섬유와 패키지, 라벨 등 특수 프린팅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인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친환경 인쇄의 확산

기후변화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인쇄산업에서도 친환경 기술의 도입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K-PRINT 2024 전시회에서는 친환경 잉크, 재활용 가능한 인쇄용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인쇄기기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이 선보였습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인쇄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 참여업체 부스에 'ECO-PRINT' 배지를 표기해 관련 전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인쇄산업은 이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생산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이번 전시회는 이러한 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인쇄기술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인쇄산업은 친환경 잉크와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활용한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인쇄기기 도입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협력하여 친환경 인증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친환경 인쇄물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 간 융합과 협력의 장

K-PRINT 2024 전시회는 인쇄산업이 단순히 인쇄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미디어와의 결합을 통한 인쇄물의 인터랙티브화, 패키징 산업과의 협업을 통한 스마트 패키징 솔루션 등이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산업 간 협력은 인쇄산업이 기존의 틀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인쇄산업은 국제적인 기술 표준을 준수하고, 해외 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전시회와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고객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대한민국 인쇄산업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K-PRINT 2024 전시회는 대한민국 인쇄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는 디지털 전환, 친환경 기술 도입, 산업 간 융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인쇄산업은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 혁신과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인쇄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이 최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산학 협력을 통해 현장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산업 현장에서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인쇄업계의 차세대 리더들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앞으로도 우리는 기술 혁신과 친환경 전환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계, 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인쇄산업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K-PRINT 2024 전시회가 대한민국 인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큰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인쇄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오는 2025년 8월 20일(수)부터 23일(토)까지 열리는 K-PRINT 2025 전시회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K-PRINT 2024

인쇄산업의 미래를 여는 통합 솔루션 선봬

‘미래를 프린팅하는 새로운 인쇄기술’을 주제로 한 K-PRINT 2024가 지난 8월 21일부터 24일(토)까지 4일간 일산 KINTEX 제2전시장 7,8홀에서 개최되었다.

국내 최대의 인쇄축제는 명성에 걸맞게 총 275개사가 참여하여 850개 부스를 설치 운영하였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통적인 인쇄기는 물론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패키징, 라벨, 텍스타일, 사인(Sign) 산업의 새로운 융복합 기술과 솔루션 등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혁신적인 디지털 인쇄기술을 선보인 주요 업체들

이번 전시에 눈길을 끈 업체로는 수성 디지털 인쇄기를 선보인 딜리, 점자각인장치를 전시한 에이스기계, 디지털 라벨 프레스 등 주력 제품을 소개한 한국엡손, 북 엡지 디지털 프린터를 소개한 시노하라코리아, 다양한 디지털 라벨 인쇄기를 선보인 후너스홀딩스 등이 있었다.

특히 딜리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운전방식 디지털 흑백 인쇄기인 네오 갤럭시와 함께 자동 책 바인더인 오토 북메이커를 시연했다. 네오갤럭시는 흑백 책자 인쇄물에 최적화된 기종으로 환경친화적인 수성잉크를 사용하며 1,200×1,200dpi 해상도와 120m/min의 속도로 단면과 양면 모두 인쇄가 가능하다. 시노하라코리아는 책 측면에 다양한 텍스트와 이미지를 인쇄할 수 있는 북 엡지 디지털 프린터를 전시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인쇄기기산업에 있어 중국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중국기업의 직접 참여는 물론 유통업체를 통해 전시된 기기 상당수가 중국제품이었고, 전시품목 또한 인쇄기기 전반에 걸쳐 있었는데 중국인쇄기기산업의 약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 인쇄기기산업의 현주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부나 업계 차원의 노력이 더 모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정부포상·이사장상·특별공로상 시상식 개최

한편, 전시회가 열린 21일 첫날에는 정부포상 등 시상식이 있었다. 우리나라 인쇄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한 김용래 타코플러스 대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라미네이팅 소모품을 개발해 해외에 수출하고, 인쇄후가공기계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주)일인엠앤씨 김동진 대표이사가 인쇄진흥재단이사장상을, 각자장인으로 우리나라 목판인쇄의 전통을 잇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K-PRINT에서 시연을 통해 선조들의 우수한 인쇄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이창석 각자장이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서울인쇄조합과 서울인쇄센터에서도 부스를 마련해 다이어리, 카드, 캘린더, 노트 등 조합원사에서 생산한 다양한 인쇄물을 전시, 홍보해 새로운 판로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모색하는 한편, 오는 10월 15일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제15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서울인쇄조합과 중국인쇄기자재협회, 협력 강화 논의

중국인쇄기자재협회 대표단 6명이 지난 8월 22일(목) 서울 인쇄조합을 방문해 양국의 인쇄산업 발전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K-PRINT 2024 참관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측과 서울인쇄조합 간 상호 정보교환 및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윤중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좌)과 왕펑나 중국인쇄기자재협회 부이사장(우)이 악수를 하며 양국 인쇄산업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 전환 속 인쇄산업의 변화와 대응

김윤중 서울인쇄조합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조합 소개와 함께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쇄 역사와 전통이 깊은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표명했다. 또한, 최근 K-POP과 같은 한류 확산을 통해 우수한 인쇄물을 세계에 보급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한국 인쇄산업의 혁신성과 글로벌 영향력을 강조했다.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전통적인 인쇄물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인쇄산업에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K-PRINT 전시에 중국인쇄기자재협회가 많이 참여했는데 앞으로 양국간 인쇄산업분야 교류협력의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인쇄시장의 성장과 디지털 인쇄기기 발전

이에 대해 왕펑나 중국인쇄기자재협회 부이사장은 최근 중국의 인쇄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발전과 더불어 패키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쇄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병행하여 인쇄기기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프셋 인쇄기계보다는 최신 디지털 인쇄기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지고, 일부 후가공 기기는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오고 있다고 했다.

중국인쇄기자재협회는 중국의 인쇄 관련 협회 회원사가 약

1,500개에 달하며 출판인쇄, 신문잡지출판, 라벨, 연포장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2025년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베이징에서 CHINA PRINT 2025 전시회를 사상 최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인쇄기자재협회는 서울인쇄조합을 공식적으로 초청하며, 양국 간 인쇄산업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의지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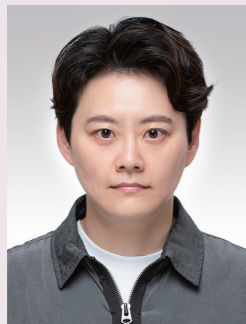
전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제안

한편, 중국은 인쇄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상하이출판인쇄대학(Shanghai Publishing and Printing College), 베이징 그래픽 커뮤니케이션대학(Beijing Institute of Graphic Communication, BIGC) 등 전국에 걸쳐 다수의 인쇄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생도 매년 수천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젊은 층의 인쇄 분야 기피 등으로 기존 전문교육기관마저 축소되고, 이에 인쇄인력의 고령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측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인쇄대학 졸업생을 외국인 노동자로 고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측은 향후 추진 방안을 상호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인쇄조합은 중국인쇄기자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양국간 상호기술과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2025년에 열릴 CHINA PRINT에 서울인쇄조합원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 인쇄조달 계약제도 쇠신되어야

공공 인쇄 조달 계약제도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인쇄물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가격 기준이 불명확해진 현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005년 이후 인쇄기준요금이 발표되지 않아 인쇄업계는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으며, 가격 경쟁의 심화로 인해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인쇄 기준요금 제도의 역사와 폐지 배경을 살펴보고, 인쇄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요금 제도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인쇄업계와 공공기관 간의 공정한 시장 거래를 도모하고, 인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범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
공학박사, 법학박사

공공 인쇄조달 계약제도의 현안

정부와 공공기관은 민간 부문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과정을 국가계약법 및 기타 법령에서 공공조달로 규율한다. 공공조달 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조달을 돕고, 민간기업들의 합법적인 입찰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거래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공공조달의 경우 계약 당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여러 입찰 참가자의 공모를 받아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요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은 계약을 이

행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평가와 입찰가격으로 결정된다. 물품 구매나 용역 계약 등의 조달 규모와 원가 등의 가격은 기준요금제도를 활용하여 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요금제도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인쇄 물품 구매 또는 용역 계약에 있어 활용되고 있는 기준요금이 2005년의 요금표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 인쇄조달 계약시의 단가 산정에 있어 기준요금의 활용은 획일적인 기준요금의 책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06년부터 기준요금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공공 인쇄조달 분야의 기준가격의 부재는 업체 간 가격경쟁과 수익구조 악화로 이어져 인쇄산업 정체의 원인이 되고, 아울러 인쇄업체의 대정부 불신을 높이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재 공공기관과 인쇄업체간 용역 계약제도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인쇄산업계 생태계에 부합한 공공 인쇄조달 계약제도의 쇠신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국내 인쇄기준요금제도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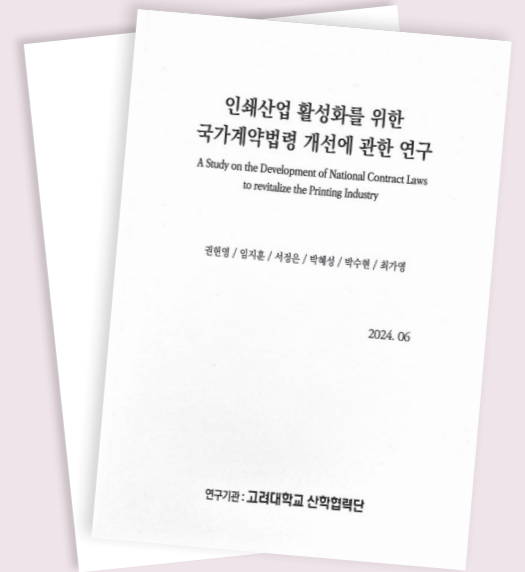
1977년 조달청은 각 공공기관의 인쇄물 가격에 적용되는 기준인 최초의 '인쇄기준요금'을 책정하여 발표하였다. 1976년 10월 당시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이 각 공공기관이 발

주하는 인쇄물 가격에 적용될 공통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1999년까지 조달청은 매년 시중 거래가격 또는 원가계산 결과를 기반으로 전년 대비 변동폭 등을 감안하여 인쇄기준요금을 발표하였고, 책정된 요금은 조달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에 공시하였다. 그러나 2006년에는 인쇄비 조정에 대한 조달청과 인쇄업계의 의견차로 인해 인쇄기준요금이 발표되지 않았다. 조달청은 인쇄장비의 발달로 작업효율이 향상되어 인쇄비 하락의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으나, 인쇄업계는 고가 인쇄 장비의 구입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 디자인(조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 원부자재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인쇄비 인상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립이 지속되자 조달청은 디자인이 인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에 비해 커짐에 따라 획일적인 '인쇄기준요금'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0년까지 기준요금을 발표하지 않았다.

문제는 조달청이 인쇄기준요금을 발표하지 않은 이후 요금기준이 모호해지자 공공기관에서는 기존 2005년 인쇄기준요금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후보자에 대한 벽보 비용, 선관위 투표용지, 선거용 책장, 각종 선거 홍보물의 원가계산에 2005년 조달청이 고시한 인쇄기준요금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 기획재정부 역시 각 공공기관의 인쇄비 예산 편성 시에 2005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을 세부 지침으로 활용하였으며, 매년 발간하는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해당 기준요금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결국 인쇄기준요금은 시장경제원칙에 따른 인쇄업체 간 공정한 시장경쟁을 높이고 인쇄물 구매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명목으로 2011년 5월 폐지되었다.

인쇄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최저가 입찰제도

인쇄기준요금제도가 폐지된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일반경쟁입찰에 기반하되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이행능력심사를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이행심사 내역에



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한 순을 점수화하여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특정 요건만 충족하면 인쇄시장의 시세와 상관없이 저가로 투찰하는 업체가 입찰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 인쇄조달시장에서는 낙찰을 받기 위해 저가 입찰을 계속하므로, 이는 매년 인쇄물 가격이 구조적 하락으로 이어져 인쇄업계의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22년 EBS 교재 낙찰 하한율이 40% 이하까지 내려가는 사태로 이어졌고,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하여 EBS 교재 입찰 최초로 유찰 사태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교재제작에 참여한 업체는 2021년까지는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낙찰을 받아왔지만, 지속적인 원가 상승분을 고려하였을 때 더 이상은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지적을 하였다.

이렇듯 인쇄업계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과당경쟁에 따른 지속적인 예정가격 이하 낙찰 및 거래 실례가 하락에 따른 추가적인 예정가격 인하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우려가 상당하다. 입찰에 참여한 몇몇 기업 간 심각한 담합이 우려되며 인쇄요금에 관한 기준 부재로 공정한 평가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 발주 인쇄단가, 여전히 2005년에 머물러있는 경우도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공공기관에서 폐지된 2005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표를 준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기준요금은 현재의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요금표이기에 인쇄업체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5년 서울특별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및 연합회 전국 회원사를 중심으로 ‘인쇄 표준원가관리 시스템 서비스’가 구축되었지만, 해당 시스템이 폐지된 조달청의 인쇄기준요금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견적금액 산출 결과가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해 활용도가 낮다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새로운 기준요금제도의 시행 요구

이러한 악순환을 철폐하기 위해 현재 인쇄업계에서는 물가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새로운 인쇄물 조달제도와 기준요금제도의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도 조달 절차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기준요금제도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인쇄연합회가 실시한 ‘인쇄용역 발주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현안 파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쇄업체들은 평균적으로 민간보다는 공공기관이 인쇄물 단가를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의견이고, 설문 대상 업체의 91%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인쇄용역 계약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변화가 시급한 부분으로는 ① 가격경쟁으로 인한 계약 단가 저하(39.64%), ② 단가 현실 반영 미흡(29.73%), ③ 단가 기준 미비(18.92%), ④ 가격협상 절차 필요(10.81%) 순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단가의 설정이 가장 필요한데(43.18%), 이를 위해서는 시장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야 하며(72%), 인쇄산업계와 공공기관이 단가 설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 설립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95%) 응답자들이 대다수 찬성하였다.

공공기관의 발주 담당자 대상 설문 조사에 따르면 93%가 인쇄물 용역 단가 기준가격이 설정되면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응답하였다. 현재 발주 시 단가 및 예산 책정 방식은 ① 과거 동일한 사업의

사례 확인(43%), ② 타 부서의 유사 사업 사례 확인(29%), ③ 2005년 조달청 단가 기준(21%), ④ 기존 거래 업체에 가격 문의(7%) 순으로 선정되었다. 공공기관 인쇄용역 발주 담당자의 86%가 기준 가격 제도 도입에 찬성하며, 79%는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국가예산편성시 인쇄비 부분 단가 지정 및 활용

현재 인쇄산업계가 겪고 있는 공공 조달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인쇄물 조달에 있어서 적정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인쇄물 관련 단가 기준을 산정하고 해당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인쇄비 예산 책정 시에 단가 기준을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예정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예산안 편성지침 상 공공 인쇄 예산안은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속한다. 일반수용비는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쇄비는 국가계약법상 규정을 적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사례가 있을 때는 최근 거래실례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 가격이 더 낮을 경우에는 견적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새로운 항목에 대한 인쇄는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평균 가격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그러나 해당 규정은 과거의 계약 금액을 적용하여 원가 상승 등의 현실 조건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일반수용비는 구체적인 단가별 세부적인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기에 유동적인 가격 변화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특정 분야 단가별 세부 적정가격을 조사제도를 참조하여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례로 조달청은 토목분야, 건축분야, 전기·정보

통신 설비 조달에 관하여 품목별로 3개 업체 이상을 대상으로 가격 조사를 실시하여 기준 단가가격 정보를 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토목, 건축 공사 등의 분야와 인쇄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인쇄도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현재 적정한 단가 선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기적 조사 방법의 도입을 통해 현실적인 단가 가격을 산출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기관, 협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인쇄물 적정가격과 기준원가를 파악하도록 하고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인쇄비 부분 단가를 명시하는 것이다.

물가 변동 등 가격변경 협의 절차 및 소통 절차 마련

두 번째로, 원자재 급상승 등 가격변동의 유동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격조사 시에 전문조사기관 등은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사전가격 책정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적정가격이 산정된 후에도 가격변동의 상황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와 기업,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각각의 이익을 논하고 양해를 얻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추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즉,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해 가격 담합 등 시장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적정가격이 산정된 후에도 협의 절차를 두어 외부 요인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소통창구로서의 협의체 신설

마지막으로 인쇄산업계와 공공기관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신설하여 물가와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 단가를 직접 조사하고, 업체와 수요기관 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부여한다. 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정으로 인쇄물 제작 용역 발주 시에 시장 상황을 반영한 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협의체는 인쇄산업계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시장조사에

직접 참여하는 시장기구이자, 수요기관과의 분쟁을 중재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진 기구로서 국가계약법 제도의 법률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쇄산업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최근 대부분의 콘텐츠 및 제작물이 온라인으로 전환하며 인쇄산업도 디지털 전환(DX)의 혁신 도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AI,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도입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의 일환이면서도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행정화의 사회적·기술적 변화로 인해 변화된 서비스 방식에 살아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쇄산업은 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문구류 등의 디자인 인쇄 제품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다. 즉, 인쇄산업은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요를 촉발하고 가치를 높이는 산업 인프라이며, 향후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산업이 될 수 있다. 인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기반 환경 조성, 기술 개발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내 인쇄산업이 디지털 전환기에 맞추어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한류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기반을 형성하여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시급하다.

이러한 노력의 출발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인쇄기준요금제도의 마련이라고 본다. 인쇄업계의 적절한 수익성 확보는 인쇄산업의 향상을 이끌고 이는 국내인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제고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다.

지난 인쇄저널 8월호에 실린 <이슈 | 인쇄산업계 현안 시리즈 I -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인쇄물 편중 심해>는 김병수 서울인쇄조합 상무이사의 기고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관련 기자간담회

제도의 문제점 대대적으로 공론화하고, 제도적 보완과 강화 방안 개선 촉구

서울인쇄조합은 지난 8월 16일(금) 오후 2시 조합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윤중 이사장을 비롯하여 조합 임원,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가 참석해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공론화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제도로 인한 인쇄업계의 어려움을 조명하고,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한 인쇄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본지 8월호에 실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글과 관련하여, 그 연장선에서 인쇄업계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맞춘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중소 인쇄업체들이 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조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업종별 구매액 한도 설정과 공정한 제조 환경 조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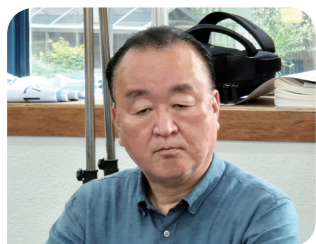


전준호 카오스넷(주) 대표

이 제도에서 인쇄물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일반 인쇄업계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인쇄업종이 전체 우선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소규모 인쇄업체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구매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생산품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의 경험에 토대로 의견을 말하자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공공기관에서 일정 비율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공공기관에서 거래처를 장애인 생산시설로만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생산시설만을 선호하는 경우, 중소기업이나 신생 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또 인쇄업은 각 공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업체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장애인 생산시설과의 협업 구조 내에서 공정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과도한 수수료는 단순히 개별 업체의 비용 부담을 넘어서, 인쇄시장 전체의 가격 형성에 왜곡을 초래한다.

인쇄는 고도의 기술과 체력 요구, 생산 과정 직접 참여 의문



조재영 케이에프맨(주) 대표

오랜 인쇄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견해를 제시하자면,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시설에 대량의 인쇄물을 주문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일반 인쇄업체조차도 소화하기 힘든 물량을 장애인들이 과연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인쇄 작업은 색 조정, 대형 기계 조작 등 고도의 기술과 체력을 요구하는 작업이 많아 중증장애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생산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인쇄품목이 18.5% 차지, 전체 인쇄업계에 상당한 부담



안경만 (주)경인디앤피 대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공공기관 의무구매 비율이 1%로 설정되어 있지만, 전체 생산품 중 인쇄품목이 18.5%(약 1,415억원)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웠으며, 이러한 결과에 직면하니 참담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특정 제품군이 이처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큰 문제이며, 이러한 비율이 장애인 생산시설의 다양한 생산능력과 시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장애인이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지 강력한 검증 절차 필요

조달청의 제조물품 직접생산은 상당한 비율로 생산에 참여해야 하고 검증 절차도 까다롭다. 장애인 생산시설도 실제로 장애인이 제품 생산에 투입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강력히 필요하다. 현재의 제도는 장애인의 실제 고용 및 생산 기여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하기에 보다 철저한 검증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이창래 前사무용인쇄부회 간사장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제조 물품 선택 기회 제공해야



김윤중 서울인쇄조합 이사장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장애인들을 위한 긍정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쇄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소규모 업체 비중이 높은 인쇄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불공평하다. 제도가 인쇄물에만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강화할 수 있는지를 의문이며,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제조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제도의 다양성을 높여 장애인 복지를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편중된 구조가 장애인 생산시설의 능력과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특정 업종에 지나친 집중은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장애인생산품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해 다양한 제품군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창출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개선을 위한 여론조성에 힘을 보탬 것



김영환 이데일리 기자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제도가 인쇄업계 전반에 걸쳐 야기하는 문제들을 상세히 이해하게 되었다.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에서 나온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통해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만큼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 여론 조성과 더 나아가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인으로서 힘을 보태겠다.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 매입 관련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보고 씨는, 2022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 5백만 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며, 202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 원도 함께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2023년 8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가치세 5백만 원은 받지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 대손세액 공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 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 한다.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 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대손세액공제 사유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

된 채권

- ②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③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④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
- ⑥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 ⑦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인 채권

● 대손세액공제 신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구비서류】

- ① 파산: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 ② 강제집행: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배당표
- ③ 사망, 실종: 매출세금계산서, 가정법원 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 ④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매출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 ⑥ 상법상의 소멸시효: 매출세금계산서, 인적사항·거래품목·거래금액·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 사례에서 장보고 씨의 경우는, 2024년 2월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2024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백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

2025년 조합원 수첩 대표자 컬러사진 접수

우리 조합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조합원 수첩을 컬러 인쇄로 제작합니다. 이에 컬러 사진으로 새롭게 교체를 원하시는 회원사 대표께서는 네이버폼이나 이메일을 통해 오는 9월 30일(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폼으로 컬러사진 업로드하기

- 1. 조합 홈페이지(www.spiic.or.kr) 팝업창(공지사항) 통해 업로드
- 2. 모바일기기에서 우측 QR코드를 카메라로 촬영, 링크해 업로드



이메일로 컬러사진 보내기

이메일(spic8631@naver.com) 전달 시 사진 데이터와 함께 아래 내용 기입 후 첨부 요망

- 1. 회사명 :
- 2. 대표자명 :
-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조합원 수첩 제작을 위한 정보 수집
- 수집항목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사진, 대표자 휴대폰 번호
-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 이용 동의 일로부터 1년간 보유 후 폐기
- 작성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조합원 수첩에 내용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동의 안함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조합원 수첩 변동 사항을 통보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 _____

대표자 : _____ 인 또는 서명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 윤 중

문의 : 사업홍보팀 석자현 과장 Tel : 02-333-8631(내선 241번) | E-mail : spic8631@naver.com



기술과 예술의 융합, 40년 인쇄 여정

(주)해인기획 유명식 대표이사



(주)해인기획 유명식 대표이사

인쇄는 단순히 종이에 잉크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예술이 결합하여 산업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전달하는 창조적 융복합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인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기록해왔으며, 그중에서도 인쇄는 오랜 시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디지털화된 세상에서도 인쇄의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으며, 특히 고급 인쇄물이나 패키지 인쇄와 같은 특수 분야는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 해인기획의 유명식 대표는 이러한 인쇄산업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실현해온 인물이다. 해인기획은 1985년에 설립된 이후로 거의 4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국내외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해인기획의 시작과 성장 과정, 그리고 인쇄업의 미래에 대한 유명식 대표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는 여름의 마지막을 예고하듯 늦더위의 끝자락을 마저 풀어헤친 남산자락 바로 아래 해인기획 본사에서 이뤄졌다.

Q 대표님, 안녕하세요? 입구에 들어오면서 보니 ‘해인(häin)’이라는 상호가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A 제가 대행사를 나와 사업을 시작할 때, 함께 동업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조선일보에서 광고부장을 하셨던 분으로, 영업을 담당하셨고 저는 제작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시 유행하던 세련된 영어 이름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그분께서 ‘한자 이름이 더 신뢰를 줄 수 있다’며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해평’이 고향인 그분과 ‘인동’이 고향인 저의 고향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와 ‘해인’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죠. 처음엔 발음도 어색하고 사람들이 해인으로 오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이름을 부드럽게 느끼고 좋아하더군요. 그래서 해인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저는 간판에 에이 우물라우트가 있어서 처음에 독일어로 지은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A 맞습니다. ‘häin’이라는 단어를 독일어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했습니다. 개성을 살리기 위한 장치였어요.

:: 인쇄업에 뛰어든다

Q 해인기획이 1985년에 설립되었다고 말씀하시니, 벌써 40년 가까이 되었군요. 인쇄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원래 광고 기획과 디자인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기획은 매출을 올리기 힘들고, 야근이 많아 몸이 지치더군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제조업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서비스업은 휴가를 가거나 몸이 아프면 일이 멈추지만, 제조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당시 맡겼던 인쇄 품질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제가 직접 인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인쇄 기술자들과의 소통이 어려웠고, 평소 친분이 있던 디자인 회사들과의 수금 문제도 힘들었어요. 당시 디자인 회사들도 고객으로부터 디자인료를 많이 깎이고 경영이 어렵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쇄비를 맨 나중에 주거나 적게 주곤 했죠. 그렇게 일이 많아도 미수금이 쌓이다 보니 사업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 대기업과의 성공적인 거래

Q 그러다 대기업과의 거래가 시작된 건가요?

A 맞습니다.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수금이 어려웠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기업과 거래를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이미 고정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거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태평양(현 아모레퍼시픽) 디자인센터에 인쇄 품질을 설명할 기회를 얻어 디자이너들을 깜짝 놀라게 했고 이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처리해준다 보니 오히려 담당 디자이너들에게 크게 인정받아 이후 고정 거래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Q 그 후 신세계 백화점과의 거래도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A 신세계 백화점에서 저희 소문을 듣고 찾아와 인쇄테스트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과정이 상당히 번거로워 여러번 사양했지만 결국 제안에 응해 기대이상의 결과를 도출했고 결국 협력업체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 전국 인쇄협력업체의 색상표준화를 구축하려던 신세계백화점이 저희 솔루션과 인쇄물을 레퍼런스로 해 전국 협력인쇄업체의 인쇄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국 협력업체에



해인기획의 인쇄실 내부. 현재 고모리 5색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다.



디자이너와 예술가를 위한 인쇄사인 해인기획은 경치 좋은 남산 자락 바로 아래 위치해 있다.

CTP와 교정 플로터, CMS(컬러 관리 시스템)를 도입하게 함으로써 색상 표준화를 이뤄내 전국적으로 인쇄물의 품질을 높였고, 신세계와도 안정적인 거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국제적인 성공과 성장

Q 대표님께서 뉴욕의 유명 디자인 회사와도 협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 뉴욕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인 회사와 협업하게 된 것은 한국에서 열리는 프라다 패션쇼와 관련된 인쇄 작업을 맡으면서 시작되었어요. 그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천 페이지짜리 브로슈어 작업까지 맡게 되었고, 이후 꾸준히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엔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장개척단에 참석했을 때에는 우연히 그곳을 방문한 세계 경제 포럼(WEF)의 마케팅 담당 임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열리는 포럼에 저희에게 인쇄 작업을 맡길 수 있겠냐고 물었고, 다음 해에 실제로 협업을 하게 되었죠.

Q 그럼 WEF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군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A 그때 작업이 정말 긴박했어요. 당시 회의 때 사용한 모든 인쇄물을 우리가 제작을 했는데 당시 담당자가 한국에 미리 출장을 와 시시각각 변하는 데이터를 우리 사무실에 와서 계속 체크하고 인쇄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초청장을 호텔 방마다 배포해야 했는데, 해외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참석여부가 임박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토요일 밤에 급하게 작업을 하고 일요일 오후에 겨우 맞춰 배포했죠. 당시 오프셋 인쇄로는 납기를 맞출 수 없어 미리 만들어놓은 두꺼운 종이재질의 초청장 초안에 금박 스템핑으로 진행했는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초청장의 품격을 더욱 높여줘 호평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인쇄의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좀더 예술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긴 작은 부분이 결국 큰 차이를 낸다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Q 소나무 사진으로 유명한 배병우 작가의 VIP 캘린더를 오랫동안 작업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A 배병우 작가의 작품은 대부분 흑백사진이기 때문에 흑백사진의 미학을 인쇄물로 표현하는 데에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매년 VIP를 위한 캘린더를 제작할 때에는 사진 원본을 직접 보며 수정하고 인쇄를 진행해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그만큼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내놓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Q 캘린더 텍스트를 보니 실버 잉크를 사용하신 점이 눈에 띄니다. 사진 작품에도 실버 잉크를 적용하신 건가요?

A 언뜻 보기에는 일반적인 흑백 인쇄물로 보이지만, 사실 3도 인쇄가 들어갑니다. 실버 잉크를 사용하면 빛을 받아 더 화사하게 보입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까지 신경 쓰는 작업이죠.

Q 저희 조합에서도 걸어놓고 싶은 캘린더를 제작하고자 올해에 이어 내년도 캘린더를 남이섬으로 유명하신 강우현 작가와의 협업하고 있습니다.

A 배병우 작가는 저와 동창이고 강우현 작가는 홍익대 2년 후

배입니다. 강우현 작가는 남이섬을 하나의 거대한 작품으로 만들었듯이, 캘린더 작업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조합 캘린더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Q 일본 유명 작품집을 샘플만 받고 재인쇄를 의뢰받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A 특히 일본의 다이나폰과 같은 인쇄 업체는 고유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특정 색상 구현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실험을 거쳐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야 했죠. 이 과정에서 기술적 경험이 쌓였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인쇄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해인기획의 작업을 보면 단순한 인쇄가 아닌, 예술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이와 같은 노하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A 인쇄는 기술 이상의 작업입니다. 디자이너가 의도한 색상을 정확하게 구현하려면, 각 인쇄 공정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CMS(컬러 관리 시스템)를 통해 디지털 모니터에서 본 색상과 실제 인쇄물의 색상을 맞추는 작업이 중요한데, 이 과정은 기술적인 경험이 쌓여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미래의 인쇄산업

Q 마지막으로 우리 업계에 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A 우리나라는 목판인쇄와 금속활자 인쇄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텐베르크보다 앞서 금속활자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우리가 직지심경 같은 유산을 자랑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지가 현재 청주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직지처럼 중요한 세계적 유산은 단순히 지방 차원에서 관리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더 큰 차원의 연구 기관이나 문화재 관리기관이 직지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데 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동안 인쇄종주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금도 그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쇄실 현장을 찾은 디자이너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감리를 볼 수 있도록 인쇄실 안에 감리실을 별도로 설치했다. 왼쪽은 금박 및 레터프레스 등 인쇄물에 예술적 형태를 주기 위한 하이델베르크 활판 인쇄기가 실제로 운용되고 있다.

다. 최근 케이팝과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쇄 분야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조들이 보여준 것처럼 혁신적인 도약을 이뤄낼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조들이 이뤘던 혁신적인 성과를 이어받아 현대에도 그만한 도전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쇄종주국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세계 속에서 다시 한 번 우리만의 독창성과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인터뷰를 마치며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해인기획의 유명식 대표가 어떻게 인쇄업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인쇄업의 미래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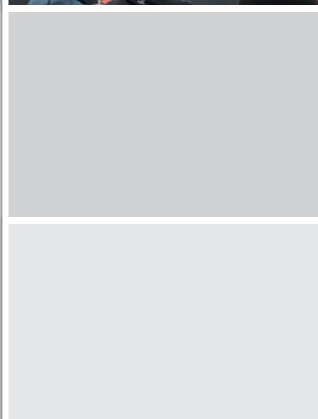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는 기술적 도전을 이어가며, 인쇄와 디자인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특히 예술에 대한 궁극의 탐구정신이 인쇄기술에도 통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한 비결은 바로 창조적이고 끝모를 도전이라고 본다. 우리 인쇄업계가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인쇄산업계가 꼭 되새겨 봐야 할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디지털 시대에도 인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K팝과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특수 인쇄물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고급화된 인쇄물과 패키지 인쇄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인기획과 유명식 대표의 발전을 기원한다.



인쇄, 미래를 창조하다

제15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기대된다



인쇄의 유산과 미래를 되살리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인쇄조합과 서울인쇄센터가 주관하는 제15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가 개최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인쇄, 미래를 창조하다'라는 주제로 서울 청계광장에서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축제에서는 인쇄산업의 진화를 조명하고, 혁신적인 인쇄기술을 선보이며, 디지털 시대에도 인쇄가 계속해서 수행하는 역할을 조명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5대 특화산업 중 하나인 인쇄부문을 홍보하고 인쇄의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핵심 플랫폼이다.

서울인쇄대상 시상, 인쇄물의 우수성 소개

축제의 중심에는 국내 유일의 인쇄품질 공모전인 서울인쇄대상이 있다. 올해 대상은 K-POP 홍보자료 'LE SSERAFIM ON-OFF 22-23'을 제작한 (주)투데이아트(대표 박장선)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심사위원들은 작품의 선명한 색상, 인쇄품질, 수출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적 성공을 위한 인쇄 역량의 사례로 인정했다. 금상에는 (주)사모일요일(대표 김필남)의 전시도록 '송파책박물관-인쇄, 시대의 기억을 품다'와 (주)영림인쇄(대표 이홍일)의 '서울인쇄조합 2024년도 캘린더-강우현의 추억모

음', (주)에이원(대표 이홍일)의 '치우천왕', 일반시민 임채영씨의 '햇살의 표정, 감의 기억' 등 4개 작품이 차지한다. 올해 서울인쇄대상은 역대 가장 많은 총 203개의 출품작 중에서 학생과 시민의 출품작을 포함해 총 45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다채로운 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인쇄물과 대중의 연결

시민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일상생활에서 인쇄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축제에서는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제공하는 20개 부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방문객들은 친환경 가방, 엽서 등 자신만의 상품을 디자인하고 인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인쇄 매체가 어떻게 관련성을 유지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주요 볼거리 중 하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창석 선생의 목판 시연이다. 방문객들은 조각사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고 한국의 풍부한 인쇄 역사에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목판 활자 탁본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K-POP 인쇄 전시회에서는 전통적인 인쇄 방법을 현대 대중 문화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지속 가능한 인쇄 기술도 선보일 예정이다. 친환경 인쇄소재 분야의 선두주자인 무림페이퍼와 협력하

여 방문객들은 재활용 종이와 지속 가능한 인쇄 공정이 환경 보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다.

고부가가치 인쇄물 홍보 통해 시장 확대 모색

축제의 주요 목표는 인쇄업계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맞춤형 인쇄 캘린더, 판촉물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홍보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시장 기회 확대를 모색한다. 업계 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서는 현장 취업 박람회도 개최하여 잠재적인 직원과 인쇄 회사를 연결하고 젊은 구직자들이 인쇄 부문에서 취업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현장에서 기업 관계자와 인쇄학과 교수 등 업계 전문가들이 직접 진로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차세대 디자이너와 인쇄기술자의 연결고리 마련

이 축제는 인쇄의 풍부한 유산을 기념하는 한편, 그 시선을 미래로 확고히 바라보고 있다. 신구대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등 인쇄 관련 참여 교육기관에서는 인쇄 디자인의 현대적 트렌드와 최첨단 혁신을 강조하는 학생 프로젝트를 전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차세대 디자이너와 인쇄기술자들이 꿈꾸는 인쇄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인쇄의 지속 가능한 미래

인쇄매체가 디지털 기술과 함께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15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는 인쇄가 소용돌이만 아니라 예술 형태로서 여전히 필수적인 매체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전통과 현대 트렌드를 결합함으로써 이 축제는 중요한 문화와 산업이 공존함으로써 인쇄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유튜브-인쇄소 혁신형TV'를 통해 생중계됨으로써 모든 시청자들이 축제를 경험하고 오늘날 세계에서 인쇄의 지속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15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 주제안 : 인쇄, 미래를 창조하다
- 주최 : 서울시
- 주관 :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서울인쇄센터
- 행사기간 : 2024년 10월 15일(화) 10:00~18:00
- 행사장소
 - 개막식 및 시상식 : 10월 15일 오전 10시(청계광장)
 - 전시회 및 체험행사 : 10월 15일 오후 1시(청계광장)

서울인쇄조합, 제3회 정기이사회 개최 조합 현안 과제 및 대책안 논의



서울인쇄조합(이사장 김윤중)은 지난 8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호텔PJ 4층 카라디움홀에서 제3회 정기이사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는 이사 총 50명 중 33명이 참석하고, 감사 2명이 동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윤중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쇄업계는 디지털 전환과 인력난,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들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이 변화의 파고를 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인쇄업계의 중요 이슈인 공공기관 인쇄물 조달 제도와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조합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 8월 2일에는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가점 문제 및 조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임을 밝혔다. 감사보고에서는 조합 운영 및 재무 사항에 대한 주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특히, 공동상표수수료 미수금과 대한기술협회의 미수금 1,200만 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감사 지적 사항으로는 2025년 캘린더 작성 시 3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체결해야 하며, 기획, 디자인, 편집, 인쇄, 제본 등 80%의 공정을 담당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해외연수(학생, 2세)를 위해 중앙회, 서울시, 중기청을 상대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알아보고 예산을 지원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도 2/4분기 사업 현황 및 재무제표 보고안이 상정되었으며,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다. 사업 및 재무 상황에 대한 조합원들의 논의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큰 이견 없이 원안이 통과되었다. 기타 논의 사항에서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에 대한 대응 필요성, 인쇄문화회관의 지분 관련 임대료 문제, 인쇄문화의 날 정부포상 투명성 확보 요청, 4부 간사회 지원금 관련 논의, 해외 연수 보조금 지원 요

청, 전산정보부 지원금 문제, 기타 미수금 해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먼저 인쇄문화회관 지분 관련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인쇄조합이 인쇄문화회관 토지 6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69명의 사무실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조합이 받는 연 400만 원의 임대료는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사회는 조합이 적정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인쇄문화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정부포상 과정에서 조합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산정보부회 인원이 현재 30명 수준으로 50명이 될 때까지 지원금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라벨 부회 신설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회 운영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가 인쇄 분야에 편중된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지정비율이 2025년부터 현행 1%에서 2%로 상향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했다.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개선에 대해서는 행사가 하루만 개최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내년부터는 행사 기간을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이에 맞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논의했다.

인쇄물 적정가격 제도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 대한 설명도 함께 가져



대한인쇄연합회(회장 박래수)는 2차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인쇄물 적정가격 제도화 연구·용역 사업의 최종보고회를 지난 8월 27일(화) 오후 3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을지유니크팩토리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인쇄산업활성화를 위한 국가계약법령 개선에 관한 연구’로, 조달시장에서 인쇄물 기준가격이 없어 발생하는 과당 경쟁 및 단가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022년에 마련된 인쇄물 적정가격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토대로, 권현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연구진이 주도했다. 연구 범위는 △국내 정부조달 적정가격 제도의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해외 사례 및 관련 제도 조사·분석 △인쇄물 기준단가 설정을 위한 설문 조사 △국가계약법령 개선사항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 등이었다. 연구의 핵심 제안은 공공 발주 인쇄물 제작 용역의 표준단가 설정이었다. 이를 위해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라 인쇄물 제작 용역발주 시 시장 형성가격을 반영한 단가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

로 고려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기관이나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인쇄물 적정가격과 기준원가를 파악하고, 예산안 편성 시 단가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인쇄산업계가 포함된 협의체를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용역 단가를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계약 담당 공무원이 예정가격 산정 시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부당한 가격경쟁 여부를 확인하는 감사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도 제안되었다. 최저 입찰가격을 밀도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입찰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박래수 대한인쇄연합회 회장은 “이번 연구는 인쇄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중소 인쇄업체가 공공 조달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전반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쇄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

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인쇄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나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인쇄물 적정가격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발주 단가 책정 기준이 마련되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함께 인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병권 연합회 전무이사가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수공급자계약은 공공기관이 여러 공급업체 중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공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격 경쟁을 유도해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인쇄물 책자 다수공급자 계약 추진계획은 인쇄물 공통 규격을 제정하여 조달청과 협의 보완 후 규격을 확정하고 세부 규격별로 고유의 식별번호 부여를 요청한다. 이에 인쇄물 책자 소유자와 일반책자로 규격을 나누어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로 세분화한다. 계약은 지방조합별로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 중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적격성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B- 이상으로 조달청기준 적합업체에 한한다. 기대효과로는 조달청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하면 구매의 편리성, 예산요구시 활용, 유사규격 구매 시 가격차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가격의 안정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인쇄물 납품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연합회는 올해 준비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계약 체결을 목표로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서울새조합 인세인력 해외연수 사전설명회 개최 인세 인재 양성 및 기업 승계의 미래 탐색



인세인력 해외연수 사전설명회 모습

서울인세조합은 지난 8월 20일(화) 서울인세센터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2024년도 해외연수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인세인재양성위원회와 기업 승계 대표자들, 그리고 인세학과 학생들이 참석하여 해외연수 일정과 목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였다. 특히 HP코리아의 후원으로 싱가포르에서 진행될 연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자부심과 긍지 고취

김윤중 서울인세조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해외연수는 단순한 기능 인력 양성이 아니라 기업 승계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연수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인세업계의 발전 방향과 디지털 인세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일본 연수를 통해 학생들이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싱가포르 연수 역시 대한민국 인세업계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P코리아의 김성균 이사는 인사말에서 “이번 연수를 통해 인세업계의 디지털 혁신을 직접 체험하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싱가포르의 HP 그래픽 익스피리언스 센터(Graphic Experience Center, GEO)를 방문해 최신 디지털 인쇄기술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인쇄 성장 가능성 기쁨

이어 이번 연수에서 다뤄질 주요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디지털 인쇄의 성장 가능성과 후가공 자동화, 브랜드 보호를 위한 보안 솔루션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소개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성공 사례와 인세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 교육 세션을 통해, 연수단이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세인력 해외연수 단장을 맡게 된 ㈜대원인크화학 김성미 대표이사는 “이번 연수는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인세업계의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하는 특별한 자리로 이를 통해 각 세대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급변하는 인세업계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참석자들이 단순히 현재의 기술과 흐름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되돌아보며 미래의 인세업계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비전을 함께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세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인세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3박 5일간 싱가포르에서 진행된다. 연수단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의 GEC에서 공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2일 차와 3일 차에는 HP의 인쇄 솔루션과 디지털 인쇄기술을 중심으로 한 교육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세업계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특히 2세대 승계 대표자들과 함께하는 세션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 운영과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를 통해 대한민국 인세업계는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차세대 인재들이 글로벌 인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HP코리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인세업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데이아트, 한국항공대학교 10억 기증 투데이아트홀 명명 및 발전기금 기증식 개최



(주)투데이아트(회장 박장선)가 한국항공대에 10억을 기증한다. 이에 한국항공대학교는 지난 9월 5일 오전 11시 교내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에서 발전기금을 기부한 투데이아트 박장선 회장의 뜻을 기리는 ‘투데이아트홀 명명 및 발전기금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장선 회장은 향후 5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10억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한국항공대학 허희영 총장과 투데이아트 박장선 회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헌관 제막식과 테이프 커팅식으로 이뤄진 1부 명명식과 2부 발전기금 기증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투데이아트 박장선 회장은 1997년 투데이아트의 전신인 (주)명진아트를 설립하고 K팝 아티스트들의 앨범, 화보, 굿즈를 전문 제작하는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전문 인쇄업체로 성장시켰다. SM, YG, JYP, 하이브 등 주요 엔터사와 함께 작업하며 K팝과 K컬처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투데이아트는 K팝 열풍을 타고 올해 매출 2,000억 원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내년 코스피 상장도 앞두고 있다. 박장선 회장이 이번 기부를 결심한 것은 경영학과 신동식 교수와의 각별한 인연 덕분이었다. “25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책임자로 있던 신동식 교수님을 만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 박장선 회장은 “공단 퇴직 후 한국항공대로 자리를 옮긴 신동식 교수님에게 어떻게 의리를 지켜야 할지 생각해 보다가 제가 먼저 기부를 말씀드리게 되었다”고 전했다. 박장선 회장은 이날 “한국항공대의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드리겠다”고 말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에 허희영 총장은 “기부하신 발전기금은 학생들과 대학 발전을 위해 고맙게 잘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투데이아

트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 공간은 앞으로 한국항공대 학생, 교직원, 지역 사회를 위해 개방되어 활기찬 대학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투데이아트는 중구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으로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중구인세육성장학재단 이사장으로 2023년 1억원 기부는 물론 올해 서울공업고등학교 그래픽아트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해외연수 등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런 투데이아트의 사명을 따라 투데이아트홀로 명명된 공간은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 1층에 200석 규모로 자리한 강당으로, 지난 여름방학 동안 인테리어, 영상음향 시설 교체 등을 포함한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났다.

조합원사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세저널은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기고’와 ‘업체탐방’, ‘홍보기사’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나 업체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서울인세조합 사업홍보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el : 02-333-8631
E-mail : cmyk1813@gamil.com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킷오프 회의 개최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중대재해 대응 맞손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지역회장 박종석)는 지난 8월 23일(금) 마포구 중소기업 DMCE타워에서 서울인쇄조합을 비롯한 4개 업종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함께 ‘서울시 중소기업 업종별 특화 중대재해 대응 컨설팅 지원사업 킷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동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업종별 대표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중대재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가이드라인의

제작·보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컨설팅지원사업에 선정된 서울인쇄조합은 △명문인쇄공사(강명자) △서울문화인쇄(주)(강영숙) △(주)계문사(류윤현) △(주)경인디앤피(안경만) △(주)수인다큐레이터(김수민) 등 5개 업체를 선정해 인쇄업 맞춤형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해 조합원사와 공유하고 안전관리우수사례 등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 수해업체의 중대재해 예방교육 지원과 관련해 서울인쇄조합 주관하에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집합·현장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승찬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됐지만, 중소기업은 담당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개별적 대응이 어렵다”며 “협동조합을 통한 컨설팅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의 안전개선과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합원사 변동

업체명	변동 전	변동 후	변동사항
동양기획인쇄	종로구 사직로8길 4, 201-216(사직동)	종로구 사직로8길 24, B층 118호(내수동)	주소
경남인쇄사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삼성동)	중구 마른내로 72, 지하 1층 13호(인현동2가)	주소
(주)한미칼라	중구 퇴계로36가길 10, 지하1층(필동1가)	경기도 파주시 신촌1로 20, 3층(신촌동)	주소
명성종합인쇄	명성종합인쇄 중구 충무로 29, 403호(초동)	명성P엔P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9, 1층(가산동)	회사명, 주소
(주)신화프린팅 코아퍼레이션	김영록	이연옥	대표자
수디앤피	마포구 성지길 25-11, 3층(합정동)	마포구 월드컵북로 136, 5층(성산동)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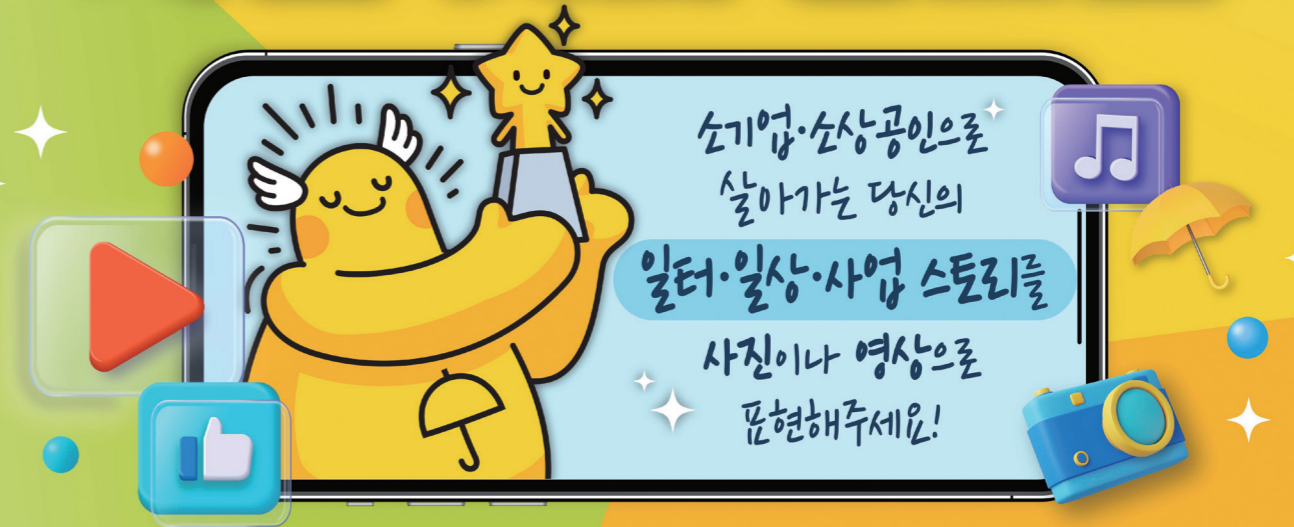
결혼

- 해외정판사 박진호 대표 차녀 현숙양이 8월 25일 JK아트컨벤션 4층 아트리움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 삼성엘리트인쇄(주) 이광욱 대표의 자녀 지승양이 8월 17일 아만티호텔서울 2층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 태성문화사 김영식 대표의 아들 태훈군이 9월 7일 웨스턴베니비스 영등포 그랜드 볼룸홀 2층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고

- 성문애드컴 이흥렬 대표의 모친께서 지난 8월 11일 별세하셨습니다.
- 태산인디고 이강훈 대표의 빙모께서 지난 9월 2일 별세하셨습니다.

제4회 노란우산 사진·숏폼 공모전



공모기간 2024.8.12(월) ~ 10.10(목)

- 참가자격**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누구나
- 시상규모** 총 상금 2,600만 원 — 대상 200만 원 (1명) 우수상 100만 원 (2명) 장려상 50만 원 (20명) 입선 20만 원 (60명)

공모주제 노란우산과 함께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이야기

- 주제에서**
 - 희망의 시작** 창업 초기의 설렘과 도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모습 등
 - 행복한 나의 일터** 행복하게 일하는 현장, 우리 가게의 자랑거리, 내가 하는 일 소개 등
 - 함께 성장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가게, 장인정신이 깃든 일터 등
 - 노란우산과의 동행** 노란우산 도움을 받은 경험(재창업 등), 노란우산 복지서비스의 경험담 등

- 출품형태**
 - 사진 부문** — 파일형식 JPG 파일, 사진크기 3,000px, 사진용량 10MB 이하
 - 숏폼 부문 (세로형)** — 파일형식 500MB 이하 AVI, MP4 파일, 영상길이 15초~50초 이내, 해상도 1,080x1,920px

* 참가자 1인당 각 부문별 1개씩 출품 가능, 부문별 중복 수상 불가
* 응모작은 순수한 본인의 창작물이어야 하며 초상권, 저작권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함

- 참가방법** ①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로그인 → ②‘이벤트’ 탭 클릭 → ③공모전 홈페이지 접속 → ④‘접수하기’ 탭에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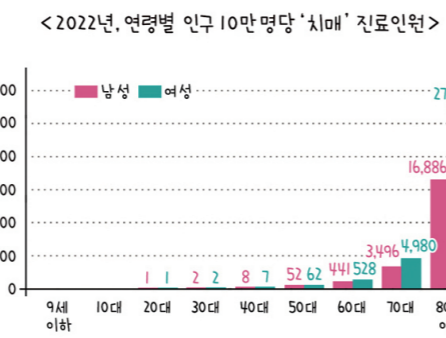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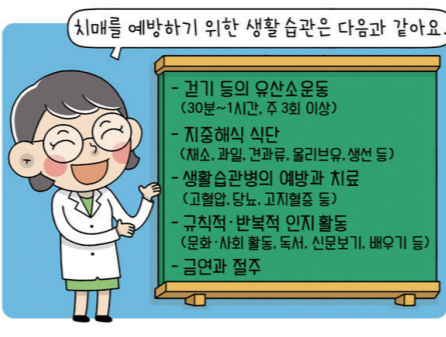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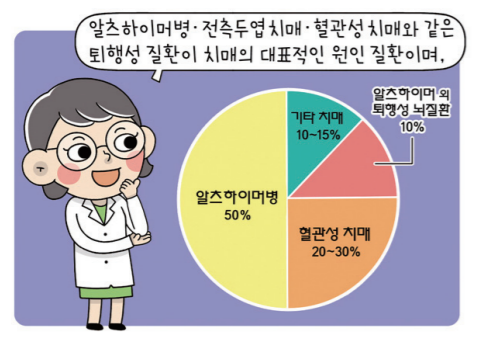
- 결과발표** 2024년 11월 중 발표 예정 *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문의사항** 공모전 홈페이지의 ‘Q&A’ 탭 또는 문의처를 통한 문의

* 문의처 TEL : 02-6212-7853(운영시간 10:00 ~ 16:00) / E-mail : info@formform.co.kr

건강IN의 건강사 이야기!

치매



<출처-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VIP 선물용

2025 캘린더 사전예약 접수안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 캘린더의 고운 질감과 따스한 숨결이 그리워집니다. 서울인쇄조합의 고품격 캘린더로 연말연시의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접수일정
9월 23일 ▶ 10월 4일

가격
• 1세트 : 벽걸이용·탁상용 캘린더, 고급 케이스
• 27,500원(부가세 포함)

조합원은 특별 할인합니다.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필 제24-08호(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노란우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체제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0조에 따라 장래 지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매 결산기마다 납부원금을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